

클레이아트로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 구유 리스 만들기 -

양 영 미



구유 리스¹⁾ 만들기

성탄을 대표하는 장식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트리와 구유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화되어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와는 달리, 구유는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집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리스의 형태를 빌린 간단한 구유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예쁜 아기 양으로 이루어진 리스를 만들며 성탄의 의미도 되새겨 볼 수 있고, 만든 후에는 교리실 문이나 크리스마스트리의 장식, 또는 선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여러모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돋울 수 있을 것입니다.

클레이아트란?

클레이아트의 기원은 도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흙을 이용하여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다양한 장식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클레이(점토) 만들기가 현대에 와서는

1) 리스(wreath) : 화환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품

색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 점토로 발전하여 각종 인형에서부터 실내장식 소품, 각종 교구(教具)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 '클레이아트'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클레이아트의 가장 큰 매력은 5가지 색(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을 섞어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기법만 익힌다면 어떠한 형태로도 제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질의 점토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점토들이 가지는 장점들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클레이아트만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아트로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성탄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며 구유 리스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과 이를 경배하는 양의 모습을 담은 이 리스를 문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해 놓고, 볼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만들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유 리스 만들기

준비물 : 폼클레이(검은색) 3개, 아이클레이(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조화, 리본, 가위, 칼 (또는 이쑤시개), 글루건, 밀대, 칠타, 반짝이 가루
 (※ 인터넷 검색 창에 '클레이', '클레이아트'를 치면 클레이아트 재료를 판매하는 여러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1. 리스 틀 만들기

- ① 검은색 폼클레이 3개를 모두 뭉쳐 하나로 만든 후 양손으로 길게 민다.
- ② ①의 폼클레이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양 끝을 붙인다.(손바닥으로 눌러 동그란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게 다듬는다.)



2. 리스 틀 장식하기

- ① '1'에 금색 반짝이 가루를 골고루 뿌린다.
- ② 조화의 끝 부분(꽃이나 열매)을 가위로 잘라 낸다.
- ③ ②를 ① 위에 골고루 꽂는다.(리스 틀 아래쪽은 리본을 꽂을 것이므로 비워 둔다.)



3. 성모 마리아 몸 만들기

- ① 노란색과 파란색 클레이를 섞어 연두색을 만든 다음, 양손을 사진과 같이 'V'자로 만들고, 그 가운데 클레이를 넣은 후 양손을 비벼 물방울 모양을 만든다.
- ② ①을 'ㄱ'자가 되게 접는다.
- ③ 사람이 앉아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②의 뾰족한 부분을 사진과 같이 접어 올린다.
- ④ 치마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넓은 부분의 아래쪽을 넓히며 관판하게 펴 준다.
- ⑤ 칼을 이용하여 치마에 주름을 넣어 준다.(칼 대신 이쑤시개를 사용해도 좋다.)



⑥ 몸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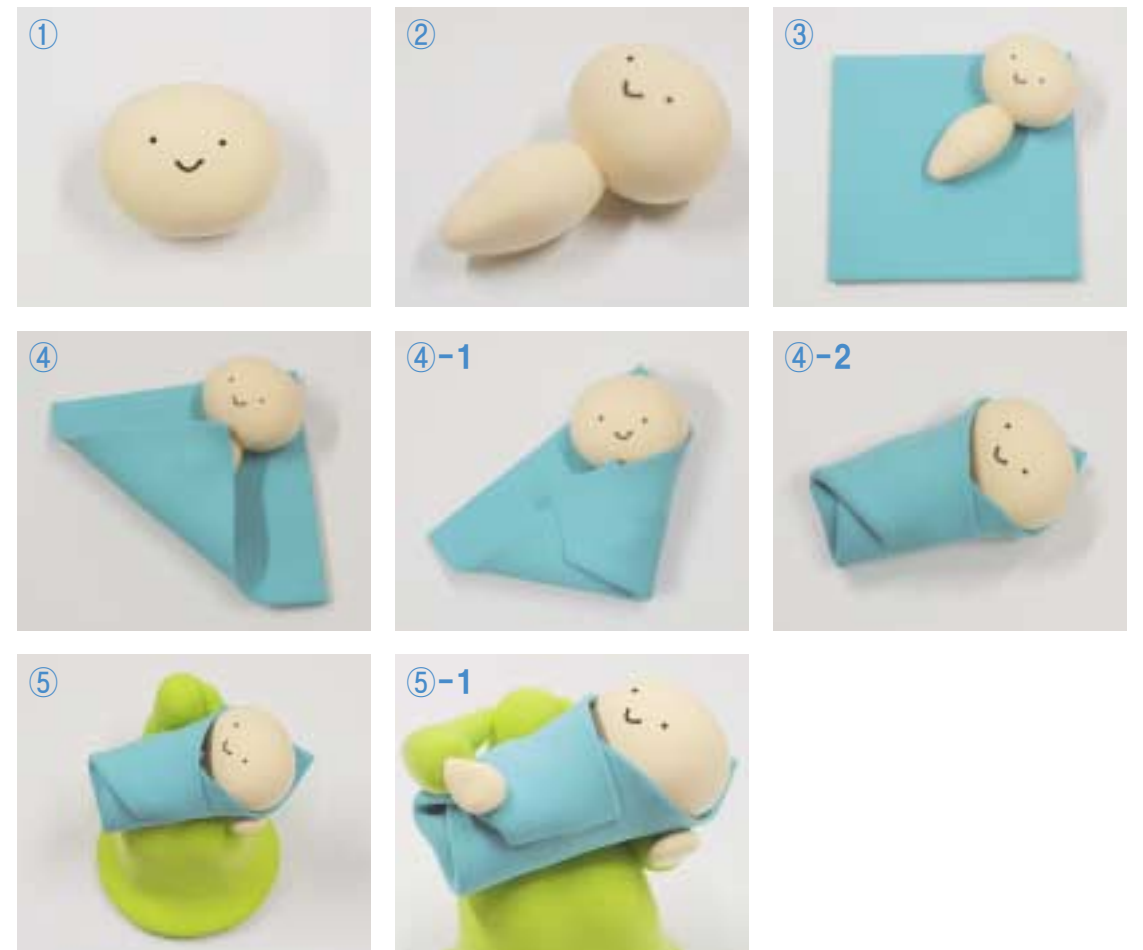
4. 성모 마리아 손과 팔 만들기

- ① 팔을 만들기 위해 연두색 클레이를 긴 물방울 모양으로 두 개 만들고, 그 중에 하나를 'ㄴ' 자 모양으로 구부린다.
- ② 긴 물방울 두 개의 동그란 부분을 눌러 소매 부분을 만든다.
- ③ 흰색, 노란색, 빨간색 클레이를 섞어 연주황색을 만든 후, 손으로 사용할 작은 물방울 모양을 두 개 만든다. 그리고 물방울 모양을 사진과 같이 손가락으로 눌러 준다.
- ④ ②에 ③을 붙인 다음, 사진과 같이 팔과 '3' (몸)을 결합시킨다.(왼쪽 팔만 붙인다.)



5. 아기 예수님 만들기

- ① 연주황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든 후, 계란 모양으로 다듬어 얼굴을 만들고, 여기에 검은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 눈과 입을 만들어 붙인다.
- ② 연주황색 클레이를 양쪽이 뾰족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아기 예수님의 몸을 만들고, ①(얼굴)에 붙인다.
- ③ 흰색과 파란색을 클레이를 섞어 하늘색을 만든 후, 밀대를 사용하여 넓게 펴 준 다음, 칼을 사용하여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그리고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에 아기 예수님을 놓는다.
- ④ 얇힌 쪽 반대편 모서리를 아기 예수님 방향으로 접어 올리고 사진과 같이 사각형의 오른쪽과 왼쪽 모서리도 접어 준다.
- ⑤ '4' 에 완성된 아기 예수님을 올린 다음, 성모 마리아의 나머지 팔도 붙여 준다.



6. 성모 마리아 얼굴 만들기

- ① 연주황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든 후, 계란 모양으로 다듬어 얼굴을 만들고, 여기에 검정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 눈과 입을 만들어 붙인다. 만들어진 얼굴을 '5' 위에 붙인다.
- ②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클레이를 섞어 황토색을 만든 후 물방울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두 개 만든다.
- ③ 사진과 같이 물방울 모양의 둥근 쪽이 머리의 중앙에 가게 붙여 주고, 뾰족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구부린다. 반대편 머리카락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인다.
- ④ 흰색과 노란색 클레이를 섞어 연노란색을 만든 후, 밀대를 사용하여 넓게 펴고, 칼을 사용하여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그리고 이것을 성모 마리아의 머리에 올려 썩은 다음, 주름을 만들어 머릿수건을 완성한다.



7. 양 만들기

- ① 노란색 클레이를 도톰한 물방울 모양으로 다듬어 양의 몸을 만든다.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연주황색 클레이를 타원 모양으로 만들어 납작하게 눌러 준 후, 양의 몸 위쪽에 붙인다.
- ② 흰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어 납작하게 눌러 준 후, 얼굴 부분만 빼놓고 몸 전체에 붙인 다음, 철 브러시로 눌러 빗겨 양털을 표현한다.
- ③ 하늘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 준다. 그런 다음 사진과 같이 한쪽 끝을 마주 붙여 양의 귀를 만든다.

- ④ 양의 머리 양쪽에 ③을 붙인다.
- ⑤ 뿔을 만들기 위해 황토색 클레이를 사진과 같이 양쪽 끝이 뾰족한 모양이 되게 만든다.
- ⑥ ⑤를 끝에서부터 말아 뿔을 완성한 다음, 사진과 같이 귀 위쪽에 붙인다. 검정색 클레이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칼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입도 만들어 준다. 연두색 클레이로는 삼각형 모양의 코를 만들어 붙인다.



※ 만들기를 할 때 주의 사항

1. 클레이 작업 전에는 손을 깨끗이 합니다.
2.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님, 양을 하루 정도 그늘에서 건조한 후 리스틀에 고정시키면 구유 리스가 훨씬 견고해집니다.
3. 클레이 작품이 완전히 마르는 데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작품을 완성한 후에 형태가 변하지 않게 주의하여 보관합니다.

8. 구유 리스 완성

- 완성된 아기 예수님을 안은 성모 마리아와 양을 오공본드나 글루건을 사용하여 리스 틀에 붙여 주고, 리스 틀을 리본으로 장식하면 구유 리스 완성.



양영미
클레이아트 전문가. 클레이아트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 부산 BEXCO에서 열린 평생 학습 축제와 2007년 호주 TOY HOBBY SHOW에 참가하여 점핑클레이를 시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 현재는 평생교육진흥연구원 클레이아트 분과회장과 해피클레이 대표를 맡고 있다.